

기사판

해암스님 열반 4주기 추모제 합천 해인사 前 조계정 종정 해암 스님 열반 4주기를 맞아 12월 31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 (055)934-3001

대불어 제40차 연수회 CD 판매 대한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어린이불교학교 지도교사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제40차 연수회 전체 강의 CD 3장과 연수회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3만원이며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대불어 2006년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051)864-4569

서울불교청년회 송년회회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는 12월 28일 만해교유관에서 서울불교청년회 송년회를 봉행한다. (02)738-3386



구로청소년수련관 겨울특강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겨울특강, 전래풍요와 놀이교실, 발도르프 체험과학만들기교실, 리더십향상교실 등을 개설했다(사진). 1월3일부터 월,수,금 수업이 진행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2만~2만5천 원이다. (02)838-1318

독거노인 방문 선물전달 서울 신길사 회복지관은 12월 26일 지역 독거노인을 방문해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02)831-2755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만	조	백	관		
다			산	수	화
라	식	성			사
	자				첨
	우				죽
	환	형	동	물	조
					가
					계



겨울방학동안 집과 학원을 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불교계가 마련한 각종 행사에 참가해 보자.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회의 '2005년 VIYA 스키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

진각 겨울방학 뭐할까? 절에 한번 가보

사찰·불교단체 겨울방학 프로그램 풍성

"긴긴 겨울방학동안 무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은 절로 모여라!" 올해 12월 27일을 전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들러 산으로 얼음을 지치고 설매를 타며 놀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낮에는 학원 다니느라, 저녁에는 인터넷, 비디오게임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올 겨울방학에는 딱딱한 도시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이 다양한 불교수련법, 겨울철 템플스테이를 준비해놓고 손짓하고 있다. 겨울방학동안 공부도 마음도 잡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한문, 영어,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수련법회를 눈여겨볼만하다. 이창에 해외로 눈을 돌려, 봉사활동을 겸한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내면의 나를 만나다-템플스테이

합천 해인사는 염불수행, 참선수행 등 수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수련법회를 2006년 1월8-11일, 청소년 수련법회를 1월12-15일 개최한다.(055)931-1001-3

화성 신홍사 역시 어린이가 수계식, 108참회, 선재동자 구뎀행 등의 수행프로그램으로 짜인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1월3-5일, 청소년의 윤리회복 수계식, 부모은중경독송독경대회, 사경법회 등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수련법회를 1월10-13일 운영한다.(031)357-3916

보은 법주사는 새해사원을 담은 등을 들고 팔상전탑돌이를 한 뒤 미륵부처님께 서원등을 공양하며 한해의 다짐을 새기는 초등학생 수련법회를 내년 1월2-4일 진행한다.(043)543-3615

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중등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12월26일~31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개최한다.(053)474-8228

성주 도솔암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월31일-2006년 1월2일 좌선, 선체조, 해맞이 포럼, 불화 그리기, 교리연극, 효도다짐 촛불 의식, 새해 발원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겨울수련법회를 연다.(054)931-0175

여주 신록사는 어린이겨울불교학교를 내년 1월2-4일, 청소년겨울수련회를 1월6-8일 운영한다.(054)436-6084

김천 직지사도 1월9일-14일 5박6일간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연다.(054)436-6174

또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격월간 <불교와문화>와 월간 <불광>은 12월29일-1월 1일 3박4일 동안 **과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1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마련했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이 대상이며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한다'를 주제로 수행과 캠프를 결합시킨 수련 프로그램이다. 절, 염불, 진언, 참선 등 다

양한 수행정진은 물론이고 대화와 글쓰기를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 등으로 꾸며진다.(02)719-2606

공부도 하고 자연도 느끼고

해남 미항사는 2006년 1월15일-22일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를 개최한다.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시강독, 문화체험과 답사,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을 진행하며 12월30일까지 모집한다.(061)533-3521

공주 마곡사는 만화와 영화에 열광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제작기법과 영어공부를 겸하는 예술캠프 '영어 애니메이션캠프'를 1월9-14일 연다. 가격은 40만원이다.(041)841-6221

서산 부석사 역시 호사상과 영어공부를 접목한 '어린이중요영어교실'을 1월1-8일 진행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대상으로 하는 충효 영어교실은 15만원이다.(041)662-3824

숲속의 풀과 나무를 보고 여러가지 자연놀이를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사찰에서의 생활을 통해 불교문화를 직접 접하고 자연의 신비를 깨우칠 수 있는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부석사 겨울캠프'를 내년 1월7-8일 서산 부석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회원은 4만5천원, 비회원 5만원이며 불교문화체험, 도비산 숲속놀이, 천수만 힐새탐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02)720-1654

새로운 세상체험-여행을 떠나요

파라미터청소년협회는 내년 1월10-14일 오사카, 교토, 나라 등지의 한국문화를 탐사하는 '2006년 제2기 청소년자율탐사단-일본속의 한국'을 발족한다. 총 45명의 서울시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신청기간은 12월30일까지. 참가비는 66만원이다.(02)723-6165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겨울 워크캠프인 '2006년 VIYA 스키캠프-하얀마음 하얀세상'을 개최한다. 내년 1월2-4일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스키를 배우며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 진각종 지방교구 및 지부 심인당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인당 주교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50명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비는 14만원이다. (02)587-8993

정도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외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4차 청소년 인도워크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중3-고3연령의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인도 보드고야 근교 동게스오리에 위치한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1월13-27일 2주 동안 함께 지내게 된다. 또 마을의 공동사위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유치원 벽화를 그리는 등의 봉사활동도 펼친다. 참가비는 140만원이며 접수기간은 12월24일까지다.(02)587-8993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수채화 같은 첫사랑의 추억과 설레임

파랑주의보 감독: 전윤수 출연: 송혜교, 차태현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이상

영화 '연애의 목적'이 흥권을 날린 이후 한국영화계는 바야흐로 '연애추천극시대'다. '연애술사' '애인' '연애' '광식이 동생 광태'가 그것. 하지만 영화 '파랑주의보'는 조금 다르다. 전자의 영화들이 영화적 재미를 추구한 화려한 연애의 기술과 불가리만을 추구했다면 후자는 첫사랑의 추억과 설레임을 수채화 같은 영상으로 담았기 때문이다.

고2 동갑내기 친구 수호(차태현 분)와 수은(송혜교 분). 평범하기 그지없는 수호와 달리 수은은 교내 모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짝사랑의 대상. 하지만 마음도 얼굴도 제일 예쁜 수은에게도 짝사랑의 상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수호. 수은은 음성사서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남기고, 수은의 달콤한 사랑 고백을 들은 수호는 그 날 밤 드디어 첫사랑의 설레임에 밤을 지낸다. 수은의 사랑 고백 후 공식 커플로 사귀게 된 수호와 수은은 천천히 자신

들의 첫사랑을 키워나가게 된다. 어느 날 친구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두 사람은 섬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매력을 수 없는 매력은 바로 천재의 절경이 가득한 거제도 풍경이다. 2.35:1의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담은 검은 조약돌이 펼쳐진 화동몽돌비치,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 등이 주인공들의 사랑과 이루어져 스크린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견 배우 김지영과 뮤지컬 출신의 배우 송창의 등이 출연해 신구(新舊)의 조화가 영화의 빛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철 기자 sasimn@buddhapia.com



전시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사진전

국립진주박물관, 내년 2월까지

문화재 전문사진가 4인의 고풍스러운 우리 문화재 작품사진 20점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국립진주박물관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사진전'을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에 동참한 4인의 사진가는 관조 스님, 김대벽, 한석훈, 안장현씨이다.

2001년 합작 사진집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사진들) 내기도 했던 이들은 이번에는 작품을 엄선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관조 스님은 사찰벽화를, 김대벽씨는 전통가옥을, 한석훈씨는 국보급 문화재를, 안장현씨는 석조 문화재 사진을 각각 전시한다. (055)742-5951



김지연 기자

무심한 돌에 새긴 禪 한기능 조각전

"내 작품을 가까이 하면서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 지기를 바란다" 조각가 한기능씨의 귀국 15주년 기념 조각전이 12월 26-31일 부산광역시 시청 2, 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속에서' '내심의 향기' '빛' '선(禪)' '구도(求道)-Meditation' 등 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기능씨의 작품들은 돌에 형상을 새겨 돌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한 편의 시를 써놓듯 조각을 한다는 평을 받는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경희대 미술경영)는 한기능씨의 작품세계에 대해 "작가가 조각해내는 인물들은 명상, 침묵, 관조 그리고 수행의 자세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051)888-4747 김지연 기자



한기능 작 '구도'

공연

세계민속예술&타악 페스티벌

12월 23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세계 6개국의 민속춤과 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자.

2005 대구 세계민속예술&타악 페스티벌이 12월 23일 오후 7시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신나는 두드림의 세계, 타악과 함께 일본 대만 불리비아 태극 터키 한국 등 6개국의 아름다운 민속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 타악그룹 하다·한울소리와 일본 대만의 특색있는 타악 연주와 공연이 신명나게 벌어진다. 2부에서는 태극 터키 불리비아의 민속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모든 참가팀이 협연을 하는 한바탕 대동마당이 펼쳐진다. (053)742-5951 김지연 기자



우리나라 참가팀인 타악그룹 '하타'의 신명나는 공연.

방송 프로그램

19일 14:05 낭만라디오	19일 21:10 한국의 명찰
20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0일 02:40 불교TV스페셜
21일 10:05 BBS신행상담실	21일 15:50 열린마당
22일 09:05 행복한 미소	22일 19:30 TV법회
23일 07:05 아침저널	23일 08:20 산중대담
24일 06:20 오늘은 좋은 날	24일 07:30 조선불교탄양사
25일 07:05 사랑의 정경다리	25일 16:50 디스커버리부디움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낭만라디오(12월 23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담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고운기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오후의 나른함을 따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12월 23일 08:20-09:20) 큰 스님들의 살아 숨 쉬는 선(禪)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02)2004-8218-9

크리스탈 연꽃

영롱한 크리스탈 안에 레이저로 새겨진 연꽃이 오색빛을 발하며 불자기정을 환하게 밝혀준다.

15cm 높이의 크리스탈은 3색 LED불빛이 발광하는 사각반침대나 5색의 LED빛이 발광하며 돌아가는 회전반침대에 세워놓을 수 있다. 장식용 크리스탈 연꽃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 가격은 1만4천원.